

공공외교 사례연구: 한류 활용 국제교류 교육 프로그램

이유나*

(한국의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초 록 〉

목적: 본 논문은 한국의 한 사립대학교가 기획한 유학생-내국인 교류 프로그램을 실무 사례로 제시하면서, 공공외교 교육에 한류를 접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자 하였다.

방법: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 중심의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은 한류를 활용해 공공외교 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기관 및 정부 기관 실무자들과 연구자들에게 몇 가지의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K-pop, 드라마, 영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소비재 유형에만 치중하기보다는 정치-경제-사회 영역에 대한 새로운 한류 유형에 대한 탐색과 공공외교 교육과정의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고 있다.

결론: 향후 보다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국제교류 교과과정과 프로그램들에 관한 실제 사례연구가 진행되고 공유되어, 발전적인 형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외교 교육 플랫폼이 개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핵심어: 한류, 공공외교, 사례연구, 공공외교교육

* 제1저자, yrhee@hufs.ac.kr

1. 서론

유학생 대다수는 K-Pop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한국에 대해 인지하게 되며, 이러한 관심이 한국을 유학 목적지로 결정하는 데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문화소비재로서의 한류에 대한 실무-학문적 관심은 큰 편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한류에 관한 관심을 공공외교 교육과 접목한 실제 사례나 성과에 관한 학문적 연구 결과는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가 한류 콘텐츠를 주제로 기획한 유학생-내국인 교류 및 공공외교교육 프로그램을 실무 사례로 제시하면서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한류를 교육에 접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자 하였다.

2. 환경 분석

1)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 인구의 특성

2020년 코로나 19 발생 이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교육 이주자 수는 증가 일로에 있었다. 특히 아시아지역 학생들의 전통적 유학 목적국이던 영미 지역에서 아시아지역으로의 선택지 이동 경향은 지리적 접근성과 문화적 근접성,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학비 등의 장점으로 인해 촉발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안영진, 최병두, 2009; 윤새은임, 2019).

교육공학 영역에서는 교육을 목적으로 한 인구이동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적 모형을 활용해 왔다. 특히, push-pull 국제적 이동모형은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어 온 개념이다(Altbach & Knight 2007; Mazzarol & Soutar, 2002, Stewart, 2020). 학생들이 자국 내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해외 유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push에 의한 이동이며, 반대로 장학금, 명망 있는 학위취득 등의 다른 인센티브 요인이나 자발적인 이동은 pull형 이동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리적·문화적 근접성이나 합리적인 학비 외, K-Pop과 같은 한류에 대한 선호도가 pull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학자들의 의견이다(Stewart, 2020).

교육부의 2018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2003년 1만여 명대에서 2018년 14만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 유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이다(2018년 기준, 48.2%). 2000년 초반에 확인했던 중국 유학생의 증가세는 중국 내 한류 콘텐츠의 확산과도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2016년 사드배치(THADD) 문제로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내리는 등 양국 간 갈등이 심화 되면서, 중국 이외 동남아시아권 유학생의 비중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8년 현재 약 4만 5천여 명에 달한다. 대체로 중국 유학생들은 서울과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집중되는 양상을 띠며,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스탄 학생들은 지방대학으로 집중되는 패턴을 보인다(김도혜, 최화정, 2019).

2020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고등교육통계자료에 의하면, 20년 4월 현재 외국인유학생은 15만 3,695명으로 전년보다 4% 감소한 상황이다. 코로나 19가 일상화된 2020년 이후, 입국불가 등으로 인한 유학생 인구변화는 공식 통계집계시기인 21년 4월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팬데믹으로 인한 유입 유학생의 감소세가 보이고는 있지만, 한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우수한 방역체계를 갖추어 안전한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는 만큼, 유학시장은 비교적 빠르게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심스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 한국외국어대학교 유학인구의 특성

앞서 살펴본 바, 한국 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유학생 국적 분포는 대체로 비슷하나 본 사례연구의 대상 기관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유학인구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개교한 이래, 외국어와 지역학 우수 인재를 배출하는 데 교육목표를 두어왔다. 이후 사회과학, 이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이 추가되어 종합대학으로 발전한 바 있으나 여전히 외국어와 지역학 전통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을 기반으로 한국외대는 현재 110개 국적을 가진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국제화 다양성 지수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대학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외대의 경우, 타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유사하지만 <표 1>에서 제시된 것처럼 유럽국가와 북남미 국가들에서도 상당 수의 유학생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외대에는 약2천 명에 달하는 유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2020). 한국외대 관계자는 코로나 19 원년인 2020년에도 직전년도와 큰 차이 없는 재학생 인원을 유지하였음을 보고하였으나, 실제 코로나 사태가 재학생 수 증감에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는 교육부 공식 집계기한인 21년 4월이 지난 이후 파악 가능할 것이다.

Stewart(2020)는 최근 외대 재학 유학생 564 명을 대상으로 한국 유학을 결정하게 된 요인에 대한 탐색적 조사를 실행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흥미가 높았으며($M=4.52$, $SD=0.686$), 한국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며($M=4.46$, $SD=0.64$), K-Pop이나 한류에 관심이 있는 편이라고($M=3.45$, $SD=1.21$) 응답한 바 있다. Stewart는 타 문항에 비해 한류에 대한 응답 평균 점수의 표준편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설문 응답자들 중 10명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공했다.

학생들이 초중고 시절을 거치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관한 관심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점차 해당 국가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즉, 관심 영역의 확장과 함께 한국을 유학 선택지로서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류는 외국인들의 한국에 관한 관심을 촉발시키는 매우 중요한 동기요인으로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여기까지의 논의로 볼 때 민간주도 외교, 즉 공공외

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인 국제적 교육 교류 활성화나 공공외교 교육에 있어 전술한 한류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 한류 콘텐츠를 교육에 활용한 실제 사례의 공유나 학문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표 1> 한국의국어대학교 재학 유학생 국적 비율 (Stewart, 2020 에서 재구성)

소속 국가(영역별)	비율(N=1,423)
Africa	0.70%
Northern Africa	0.42%
Middle Africa	0.14%
Western Africa	0.14%
Americas	17.50%
Central America	8.08%
Northern America	5.34%
South America	4.07%
Asia	37.17%
Central Asia	3.23%
Eastern Asia	21.93%
Southeastern Asia	7.3%
Southern Asia	0.91%
Western Asia	3.79%
Europe	44.38%
Eastern Europe	10.22%
Northern Europe	5.25%
Southern Europe	5.55%
Western Europe	23.47%
Oceania	0.07%
Total	100%

2) 외부 환경

2020년 1월에 본격화된 코로나 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국가 간 교류가 정체되는 양상을 보

이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진행되어 온 다양한 국제교류 및 공공외교 프로그램들의 전례 없는 취소 및 연기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그동안 주로 물리적인 이동과 오프라인 교육환경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던 대학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유학생 교육과정에 대한 전혀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어서 와! Ontact K-Culture는 처음이지?”-Ontact(On+Untact) 시대 세계 문화 교류를 위한 K-Culture의 On & Off 활성화 방안 탐구 “프로그램은, 이른바 언택트(Untact) 시대의 가속화가 시작되는 동시에 물리적-인적 국제교류가 멈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한류라는 유학생 pull 요인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적용해 세계교육교류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설계된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응모, 예산을 확보해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었다.

3. 교육과정

1. ‘어서 와! Ontact K-Culture는 처음이지?’ 프로그램

““어서 와! Ontact K-Culture는 처음이지?”- Ontact(On+Untact)시대 세계 문화 교류를 위한 K-Culture의 On & Off 활성화 방안 탐구” 프로그램은 유학생 입국 불가 상황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단계에 따른 국내 대면 수업 제한조치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자 학습환경에 맞춰 변경이 가능한 전자학습 플랫폼 즉, 온라인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을 활용하여 비대



[그림 1] LMS 랜딩 페이지

면을 주로 하는 운용을 대원칙으로 설정하였다(그림 1).

또한 일방적 강의 위주의 학습보다는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활동들을 함께 설계하여 온라인 학습의 한계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내·외국인 학생 간 팀을 구성하여 다국적 학생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전교육-온·오프 교류활동-사후보고’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류와 학습효과 증진을 도모하였다.

1) 목표

이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교류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시민 역량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었다. 특히 참여형 교류 활동을 통해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한류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확산에 대한 창의적 접근법을 도출해 내는 데 중점이 있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개인이 자국의 공공외교활동에 있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종료 후 엔터테인먼트로 소비재로서 휘발되기 쉬운 한류 콘텐츠를 지속 가능한 교육자산으로 전환, 축적하는 것을 프로그램 목표로 삼았다.

2) 단계별 구성

프로그램 지원자는 공모 과정을 통해 학부생 총 60명이 선발되었으며 내국인 37명, 외국인 23명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인 학생들과 다양한 국적 또는 지역, 문화권 학생들이 고르게 배정되도록 하여 총 10개 팀을 구성하였다.

(1) Step 1: 사전교육·활동

팀별로 국가 혹은 동일 문화권이나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우선 현지에서의 K-Culture 전파 현황을 파악하도록 했다. 이어,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해당 문화 주제에 대한 자국 문화와의 융화·발전 방향 및 교류 방안 제시 미션이 부과되었다. 사전활동 단계에서는 LMS를 활용하여 참가자들 간의 온라인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팀별로 단계에 따른 실적물을 업로드하고 이에 대한 실무 담당자와 전문가의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온라인 뿐 아니라, 팀이 프로젝트를 위한 오프라인 현장 탐방을 원하는 경우 학교에서는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하였다.

(2) Step 2: On·Off 교류 활동

프로그램 2단계는 크게 팀 프로젝트 활동, 전문가 특강 시리즈, 문화탐방으로 구성되었으며, On·Off 프로젝트 중심 교류 활동은 4차로 나뉘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① 프로젝트 활동

- (1차) 팀별 온라인 모임 후 1차 Draft 업로드: 프로젝트 주제 설정과 방향성에 대한 실무/전문가 피드백
- (2차) 팀별 온·오프라인 모임 및 보고: 팀 주제에 맞춰 전통시장, 코엑스 SM Town, 한식 문화원 등 방문 및 영상 촬영,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3~4차) 팀별 업로드 자료들에 대해 전문가 피드백 제공 및 동료 평가(peer evaluation) 진행

프로젝트 활동과 더불어 진행된 전문가 특강에서는 특히 공공외교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강의를 제공하여, 자연스럽게 팀이 진행하는 활동과 수강생 개인이 어떻게 공공외교와 연계되어 있는가를 인지하도록 설계되었다.

② 전문가 특강 시리즈

- The Evolution of Public Diplomacy in Korea

전문가 특강 시리즈 첫 번째는 공공외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의를 섭외, 정부가 주도하는 외교의 시대가 아닌 소프트파워 중심의 민간주도형 외교인 공공외교의 개념과 진화를 다루면서 각국 문화콘텐츠가 핵심적인 활용자산임을 설명하도록 하였다. BTS(방탄소년단)를 필두로 한 대한민국의 K-Culture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음을 제시하고, K-Culture 콘텐츠가 어떻게 공공외교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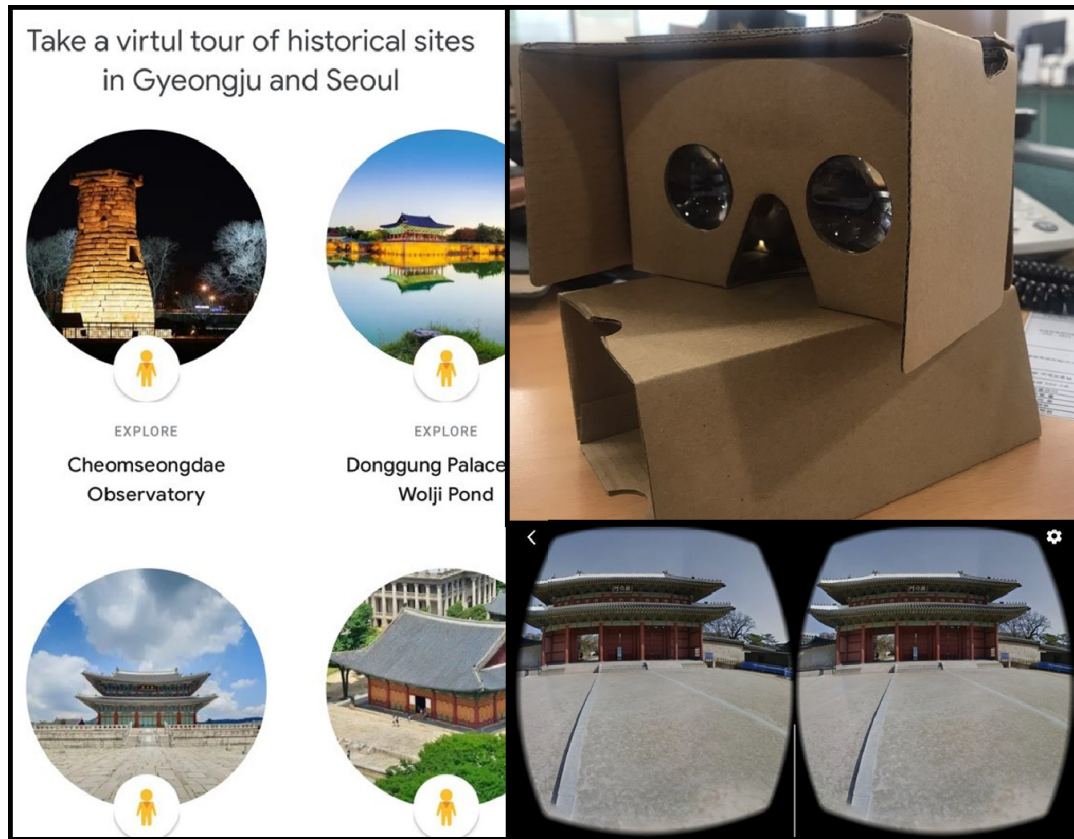
- The Importance of the Content Industry as a Future Growth Engine in Korea

두 번째 특강은 대한민국 대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CJ ENM의 실무자가 한류를 개념화하면서 그 세계화 현황에 대해 짚어주도록 하여, 수강자들의 한류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영화 ‘기생충’의 성공, 한국 드라마, 음악의 수출, KCON 등 다양한 한국 문화콘텐츠 확산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흥미를 유도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민간기업이 문화콘텐츠를 양성, 확산하는 과정에서 공공외교 활동과 연계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도록 설계되었다.

전문가 특강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내용에 대한 팀별 토론 세션이 진행되었으며 보고서를 LMS에 제출하여 피드백 세션을 가졌다.

③ 문화체험·탐방

코로나 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문화콘텐츠 기업 방문 취소로 인해 오프라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VR(Virtual Reality)을 활용한 대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유명 한국유적지와 전통문화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그림 2).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된 시기에는 서울 한국관광공사에서



[그림 2] VR 문화체험 프로그램 도구 및 실제화면
(Google Expeditions & Tour Creator 프로그램 활용)

운영하는 K-Style Hub 한식문화전시관, 지역관광 체험, K-Pop 아이돌 VR관을 방문하여 체험학습을 진행하였다.

(3) Step 3: 사후 활동

프로그램 최종단계에서는 팀 프로젝트의 실시간 화상 발표와 관련 분야 전문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각 팀 별 활동사진 및 영상, 발표 자료는 LMS 데이터로 확보·보존하여 교육콘텐츠 자산화시키도록 했다. 또한 우수 팀 프로젝트 결과물은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학교 공식 SNS 채널에 공유하고 확산시켜,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4. 운영성과 및 결론

1) 공공외교 일환으로서의 교육프로그램 제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생들은, 후기를 통해 다국적 참가자와 함께 활동하며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내국인 수강자들은 타 국민의 입장에서 자국의 문화자산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외국인 수강자들의 경우, 관광홍보를 위한 일방적 광고 콘텐츠에서는 접할 수 없는 현지인의 시각을 배울 수 있는 점을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는 본 프로그램이 공공외교가 지향하는 관 주도 탈피, 민간중심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형성을 가능하게 하였음을 시사한다. 국내외 수강자들 모두 교육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기회를 통해 다국적 친구들을 만들고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을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로 여기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교육프로그램 자체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한 다국적 국민 간 자연스러운 상호교류의 장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교육자 입장에서는 본 프로그램 사례가 한류콘텐츠를 교육에 활용하여 공공외교 개념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한류유형을 주제화하는 데 있어 제한을 두지 않고 수강생들이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선정하도록 한 것이 유효했다. 수강생들은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K-pop 등의 상업적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만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문화유형의 확산 방안 아이디어를 도출해 냈다(그림 3). 한국의 담금주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주제화하여 이를 해외에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고민하기도 하고, 한국의 대표 간식인 떡볶이를 중국 대표 식재료인 마라를 접목한 퓨전음식으로 만들어 확산시키겠다는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인사동 한식집 등을 탐방하며 한국음식을 채식주의자들에게 알리고 확산하겠다는 아이디어 제시 등이 그 예이다. 수강생들의 프로젝트 결과물들은, 한류 다각화 및 범주 확장에 있어 수용자의 관점이나 참여를 통한 발굴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 본 사례가 전염병 등 특수 재난 상황 시 운영 가능한 비대면 프로그램 포맷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제교류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고민하는 실무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한계 및 향후 연구제언

앞서 설명한바, 본 논문에서 제안된 프로그램은 한류를 활용한 국제교류를 꾀하고자 하는 다양한 교육기관 및 정부 기관 실무자들과 교육영역 연구자들에게 몇 가지의 아이디어와 시사점을 제안해 줄

공공외교: 이론과 실천, 제1권 1호 (2021. 3)



[그림 3] 수강생들이 제안한 다양한 K-Culture 주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라는 국내 사립대학에서 제한된 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비교과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반화 가능성 또는 적용성이 아주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보다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국제교류 교과과정과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례연구가 진행되어 공유된다면, 발전적인 형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외교 교육 플랫폼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의 K-pop, 드라마, 영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 소비재 유형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영역에 대한 새로운 한류 유형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교육부 (2019). 2018년도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교육부 (2020). 2020년 교육기본통계 결과발표. URL: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81682> (2021년 2월 15일 접속)

김도혜 · 최희정 (2019). 한국 유학 선택과정과 초국적 연결망. <한국문화인류학>, 52권 3호, 137-164.

안영진 · 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1권 3

호, 476- 491.

윤새은임 (2019). 수도권대학 베트남유학생의 유학동기.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4권 1호, 1-40.

Altbach, P. G., & Knight, J. (2007).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Motivations and realitie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 290-305.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n.d.). Study in Kore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Retrieved from <http://international.hufs.ac.kr>

Mazzarol, T., & Soutar, G. N. (2002). “Push-pull” factors influencing international student destination choice.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Management*, 16, 82-90.

Stewart, W. (2020). Seoul Destination: A mixed-methods study on the pull factors. *Forum for International Research in Education*, 6(3), 58-82.

Abstract

Public Diplomacy Education using Korean Wave: A Case Study

Yunna Rhee

(Professo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urpos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initiate productive discussion on how to interlace K-wave contents into public diplomacy education by presenting a case study on an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of a private university in Seoul, Korea.

Method: Exploratory case study method

Results: By presenting a concrete case study of an actual international exchange education program using K-wave as the main theme, this paper provided relevant and creative ideas for governmen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terested in public diplomacy education. Based on the case study result, the researcher also suggest that educators need to not only concentrate on K-entertainment contents but also expand their scope to explore and develop other K-wave contents dealing with Korean politics-economy-society.

Conclusion: Further research on variety of public diplomacy education program cases from other institutions is necessary in order to advance discussion and realization of the post Covid 19 public diplomacy education platform.

Keywords: *K-Wave, Public Diplomacy Education, Case Study,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Student Mobility*

투고일: 2021. 1. 15

심사일: 2021. 2. 18

게재확정일: 2021. 3. 4